

##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김혜미\*·김영순\*\*

### 초 록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여성 목회자의 다양한 스트레스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주요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346건의 연구물 중 최종 9건을 선정하여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두 가지 의미 범주 및 여섯 가지 핵심 개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의미 범주는 '목회 현장의 말할 수 없는 이야기'로 연구참여자들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별', '갈등적 관계', '불평등한 처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의미 범주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숙제'로 이들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 '일-생활 양립으로 소진', '독신으로서의 고충'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결혼한 여성 목회자의 경우 한국 사회 기혼여성이 대체로 경험하는 것처럼 일-생활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회 내에서 여성 목회자는 소수자 집단으로 미묘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 목회자는 교회 안팎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지만, 높은 소명 의식으로 이러한 정서를 쉽게 표출하지 못하는 자기 억압적 성향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여성인 목회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들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스트레스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여성 목회자, 스트레스, 일-생활 갈등, 미묘한 성차별, 질적 메타분석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onyou21@gmail.com)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kimysoon@inha.ac.kr)

## I. 서론

한국 사회 내 여성의 리더십은 2000년대 초반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우성미·오소영, 2019: 8). 그러나 여성의 사회 활동에 있어 반드시 남성과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직업 여성은 보이지 않는 차별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장벽을 가리켜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라고 한다(김은희, 2009: 1337). 직업군이나 영역의 차이를 불문하고 여성은 여전히 무형의 장벽인 유리천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김미정, 2018; 이원미, 2020; 정재명, 2010; Schleifera & Miller, 2017).

기독교의 대표적 여성 리더십인 여성 목회자 역시 이러한 유리천장의 장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성 목회자의 범주에는 목사직 안수를 받은 여성 목사와 안수받지 않은 여전도사가 모두 포함되는데(박보경, 2008; 이난희, 2021), 이것은 여성 안수 제도가 실현되기 이전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중년 이상의 여성 전도사와 여성의 목사직 안수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교단<sup>1)</sup> 소속 여성 목회자를 폭넓게 아우르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박경순(2007)은 여성 안수 제도화에 대해 그동안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교회 리더십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유하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

여성 목회자는 그 용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내듯이 목회자이며 또한 여성이다. 본 연구는 여성 목회자가 가진 ‘목회자’로서의 정체성보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더욱 주목한다. 이들이 목회자로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여성으로서서는 교회 내 차별의 문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성 중심의 교회에서 이들이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은 제한적이며(조승미 외, 2014) 이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이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한국 여성이 겪는 차별의 양상은 교회 안에도 나타나며(강희수, 2013; 김나미, 2016; 오영희, 2019) 여남평등에 있어 교회는 한국 사회 어느 조직보다도 뒤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모란, 2013; 김은혜, 2009). 교회는 여성이 주도하는 변화의 흐름에 둔감하며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김혜령, 2022; 오현주, 2018). 여남평등을 위한 움직임이 어느 집단보다도 더딘 속도로 진행 중인 것이다.

1) 교단은 교회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최상위 의결기관이다. 한국 기독교 내에는 다양한 교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성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단들도 많다(이정숙, 2003).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서구 문명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는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한 때 해방적 기능을 담당하였다(강남순, 1998). 여성 해방의 종교로 소개되었던 기독교는 그러나 1970년대 급성장한 이래, 여성 억압의 종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김은혜, 2009; 박정신, 2011; 이정숙, 2003).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지만, 유교적 남존여비 사상과 가부장적 기독교 전통의 만남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계재광, 2010; 김은혜, 2009; 서영준, 2017; 유옥, 2007; 최종호, 2010). 오늘날의 보수기독교는 페미니즘을 ‘거짓 인권’이라고 배척하며(강호숙, 2020) 가부장적이고 불평등한 구조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한국의 기독교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김진호 외, 2018: 129). 이러한 구조는 여성 목회자에게 종교의 영역은 물론 생활세계에서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질적 메타분석은 1차 질적 연구물들의 결과 종합 및 합성을 통해 광범위한 이론적 이해, 연구 결과들의 목록 작성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므로 (Levitt, 2018: 367)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을 포괄적으로 조명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스트레스 요인은 연령, 세대, 직업군,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박충무·윤현서, 2018: 838)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체적인 영향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 장애가 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우승희·주온주, 2015: 527). 특히 스트레스는 우울로 진행되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신다예, 2022; 전명철·김진숙, 2019) 분노로도 표출될 수 있으므로(송정명, 2021: 286) 여성 목회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양상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 목회자를 연구참여자로 한 선행 질적 연구물들의 메타분석을 통해 이들의 스트레스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의 스트레스

여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의 다수는 기혼여성이자 자녀가 있는 직업 여성의 일-생활 갈등을 다루고 있다(김소정, 2020; 김지아·고민석, 2012; 김

혜영 외, 2018; 박수경·이선우·배종필, 2018; 박수현·김문정, 2020; 최수찬 2018). 이러한 연구들은 기혼 직업여성의 일-생활 갈등이 커질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정에서 요구받는 책임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기혼 직업여성들은 이중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김소정, 2020: 180). 유자녀 여성의 시간 빈곤과 정신건강을 연구한 이민옥 외(2018)는 남성에 비해 다양한 역할 및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이 시간 빈곤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이것이 스트레스와 우울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처럼 기혼여성에게 가정은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결혼 후 예상되는 일-생활 갈등을 부담스럽게 지각한다는 점에서 미혼 여성에게도 무관한 일이 아니다(노유영·임춘희, 2017: 73).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미혼 여성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부적절감을 경험하므로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이유경, 2014: 222).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양상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공통의 요인으로 성차별을 손꼽을 수 있다. 성차별은 여성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로 여성의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은하 외, 2018: 410). 그중에서도 미묘한 성차별(gender microaggression)은 비가시적이라는 점에서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차별로(Sue, 2010) 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양상의 성차별로 분류되고 있다(강혜원·이정윤, 2020: 64). 직장 여성 428명을 대상으로 미묘한 성차별의 경험을 조사한 박지선 외(2022)는 이러한 비가시적인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무엇보다 미묘한 성차별은 구조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 같은 명백한 성차별에 비해 은폐되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비롯한 정신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김예은·연구진, 2018: 500). 이것은 여성 목회자가 마주하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2. 소수자로서의 여성 목회자

한정현(2016)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관점<sup>2)</sup>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이

2) 들뢰즈, 가타리(2001).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Deleuze, Guattari, *Mille Plateaux*, Paris: Les Edition de Munuit, 1980).

해의 지평을 열었다. 그에 의하면 소수자란 수의 많고 적음에 따른 양적 개념이 아닌 지배적 척도로부터의 거리로 규정되는 질적 개념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수의 많음과 적음에 상관없이 여성 목회자를 소수자로 지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남성 중심으로 위계화된 교회의 구조 안에서 여성 목회자의 지도력은 제한적으로 작동되므로(조승미 외, 2014) 여성 목회자는 지배적 척도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소수자들의 문제는 우리 시대 정의의 문제이자 여성 목회자가 속한 기독교의 진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강현미, 2021: 478) 소수자로서 여성 목회자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여성 목회자를 소수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목사직 안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성서 어디에도 여성의 목사직을 불허하는 명문화된 구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교단들은 여성의 신학교 입학은 허용하면서도 여성 졸업생의 목사직 안수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오현주, 2018; 최종호, 2010).<sup>3)</sup> 여성의 목사직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 내 여성 신학생들에게는 전도사로서의 사역만이 허용되며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수자로 내몰리며 기회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이라고 여성 목회자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유리천장에 부딪히게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여성 목회자가 되기를 지망하는 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졸업 후 여성 예비 목회자들의 진로는 제한적이고 불투명하며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아래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박보경, 2013). 이들은 남성 목회자를 보조하는 역할로 인식되고 있으며(이혜진, 2007)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은 여성 목회자에게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성 목회자에 관한 선행연구는 문헌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안수에 관한 연구(박경순, 2007; 이광순, 2005; 이상훈, 1992; 최종호, 2010), 여성 목회자의 사역에 관한 연구(양미강, 1995; 정정숙, 2008; 조상이, 2016), 여성 목회자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유옥, 2007), 여성 목회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이정숙, 2003), 여성 목회자의 목회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여성 신학에 관한 연구(강희수, 2013; 김모란, 2013; 김애영, 2009) 등으로 구분된다. 양적연구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여성 목회자에게 다중역할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들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효능감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경애, 2011; 김애영, 2011; 박미애, 2019). 이것은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이들의 직

3) 개신교 100여 개 교단 중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은 10개 안팎에 불과하다(조승미 외, 2014: 122).

무만족도 향상 방안 및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이런 맥락에서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질적 메타분석

질적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 또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 질적연구의 결과물들을 자료로 사용하는 연구방법이다. 질적연구의 특수성으로 인해 양적연구에서처럼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연구의 관점을 종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이정숙, 2017: 387).

이러한 질적 연구물들의 의도적인 종합은 근거이론의 창시자인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Zimmer, 2006: 312). 짐머의 주장대로라면 그 역사가 오래된 셈이지만, 아직까지 질적 메타분석으로 수행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정교하게 발전된 방법이 아니므로(Levitt, 2018: 367) 구체적인 적용은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질적 메타분석은 복잡한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므로(Romina et al., 2016: 662)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을 다양한 각도에서 폭넓게 이해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선행연구 분석이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그치는 한계가 있다면 질적 메타분석은 연구물 간의 결과를 비교하고 공통의 주제를 발견함으로써 지식을 확장하고 명확한 이해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Akojie et al., 2019: 119). 반대로 개별 연구물의 특수성이나 온전함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이승호·박대권, 2016: 135).

질적 메타분석을 위한 통일된 분석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해석적이며 변증법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비교 및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이정숙, 2017: 389). 이러한 해석적 분석을 통해 개별연구들에 나타난 주요 개념들이 포함되며 동시에 상위 개념을 생성하게 된다(류진아·오은경, 2021: 46). 질적 메타분석의 연구 절차는 노블릿과 헤어(1988)가 제시한 7단계를 기본으로 연구자마다 조금씩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다(이승호·박대권, 2016: 137). 이에 본 연구는 노블릿과 헤어(1988), 이정숙(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 〈표1〉에서와 같이 6단계로 진행하였다.

〈표 1〉 연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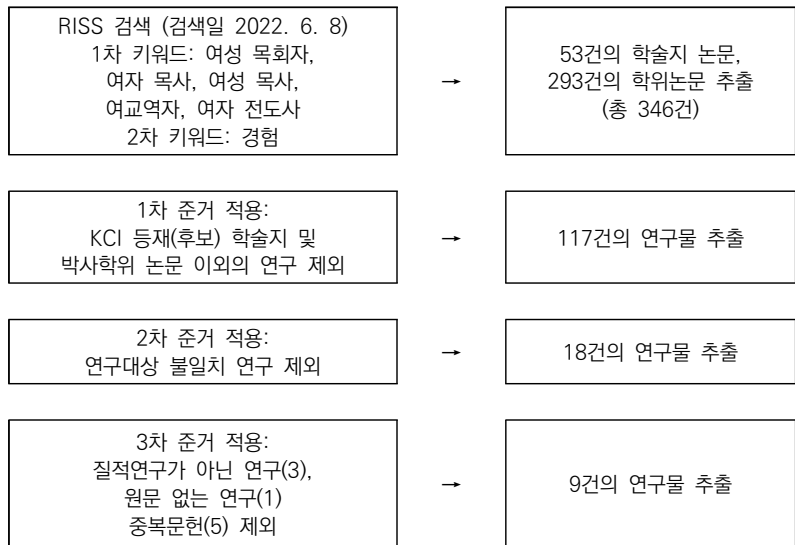
| 단계 | 내 용            |                         |
|----|----------------|-------------------------|
| 1  | 연구주제 및 연구문제 설정 |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         |
| 2  | 관련 연구물 검색      | RISS 국내 학술지 및 박사학위 논문   |
| 3  | 분석대상 연구물 선정    | 포함과 배제의 준거에 따라 최종 9편 선정 |
| 4  | 개별 연구물 분석      | 자료코딩을 통한 개념 정리          |
| 5  | 개별 연구물 간 비교분석  | 핵심 경험 도출을 통한 범주화        |
| 6  | 종합적인 해석 및 작성   | 결과 서술 및 논의 제시           |

## 2. 분석대상 연구물의 선정

질적 메타분석의 연구자는 분석대상 연구물의 범위를 어떻게 좁혔는지, 포함과 배제의 준거 및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Levitt, 2018; Sandelowski & Barroso, 2007; Weed, 2006). 본 연구는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으로 연구주제를 정하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대상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먼저 논문검색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1차 키워드 ‘여성 목회자’, ‘여성 목사’, ‘여자 목사’, ‘여교역자’, ‘여자 전도사’, 2차 키워드 ‘경험’으로 검색한 결과 학술지 논문 53건과 학위논문 293건, 총 346건의 연구물이 도출되었다.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을 검색의 범위에 모두 포함하였고 검색 시 연구물의 발표연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다음으로 완성도 높은 연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KCI 등재(후보) 학술지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이 아닌 연구물을 제외하여(1차 준거) 117건의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이중 평신도 교회 여성, 목회자 부인, 목회자 자녀, 북미 한인교회 여성, 기독 신여성에 관한 연구 등 여성 목회자 관련 연구가 아닌 연구물을 제외한 결과(2차 준거) 18건의 연구물이 추출되었다. 다시 질적연구가 아닌 연구, 원문이 없는 연구, 중복문헌을 제외하여(3차 준거) 최종 9건의 연구물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 분석대상 연구물 선정과정

## VI. 연구결과

### 1. 개별 연구물에 대한 기본 정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9편의 개별 연구물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음 <표 2>와 같다. 발행연도로 볼 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학술논문이 4편, 학위논문이 5편이다. 연구방법은 현상학(4), 내러티브(3), 생애사(1), 문화기술지(1)로 다양했으며 주요 자료수집 방법으로 심층면담이 활용되었다.

<표 2> 분석대상 연구목록

| 연구 | 연구자(연도)       | 주제                     | 연구방법 | 결과                                 |
|----|---------------|------------------------|------|------------------------------------|
| 1  | 김미성<br>(2014) | 독신 여성이 경험하는<br>목회적 삶   | 현상학  | 126개의 구성의미와<br>45개의 주제,<br>16개의 주제 |
| 2  | 김순란<br>(2020) | 여성 목회자의<br>가족 관계 갈등 경험 | 내러티브 | 갈등의 양상과 극복,<br>그 경험의 의미            |
| 3  | 김윤희·송현        | 중년여성 목회자의              | 현상학  | 4개의 구성요소, 10개의                     |



| 연구 | 연구자(연도)        | 주제                          | 연구방법      | 결과  |
|----|----------------|-----------------------------|-----------|---|
|    | (2020)         | 스트레스 경험                     |           | 하위구성요소와 32개의 의미 단위                          |
| 4  | 박향숙 (2020)     | 여성 목회자의 배제 경험               | 내러티브      | 리더십의 배제, 재정 지원의 배제, 인권의 배제                  |
| 5  | 서영준 (2017)     | 여전도사의 차별적 문화 경험             | 제도적 문화기술지 | 공간 배치의 차별, 업무의 차별, 이중 차별                    |
| 6  | 서영희 (2018)     | 중년여성 목회자의 탈진 경험             | 현상학       | 6개의 핵심 구성요소, 20개의 하위구성요소                    |
| 7  | 오영희 (2019)     | 여성 목회자의 동성 동료 갈등 경험         | 내러티브      | 갈등 경험과 관련된 반응, 갈등의 발생 원인, 갈등에 관한 재해석        |
| 8  | 오현주 (2018)     | 개척교회 기혼 중년여성 목회자의 심리 사회적 경험 | 현상학       | 137개의 구성의미, 44개의 주제, 14개의 주제군               |
| 9  | 임지연·김동민 (2020) | 여성이 목회자의 역할을 살아가는 경험        | 생애사       | 목회자가 되고자 한 계기, 여성 목회자로서의 '나', 여성 목회자로서의 리더십 |

분석대상 연구물에 등장하는 연구참여자는 총 42명으로 기혼여성 31명, 미혼 여성 11명이다. 대부분은 목사직 안수를 받은 여성 목회자이지만, 안수받지 않은 목회자인 여성 전도사도 포함되었다. 소속 교단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2. 개별 연구물 간 분석 및 종합

질적 메타분석의 자료 분석은 선정된 개별 연구물 간의 유사점을 찾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Noblit & Hare, 1988). 여성 목회자에 관한 전체 연구물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여성 목회자의 경험을 다룬 전체 연구물 목록을 1차 도출한 뒤, 스트레스를 분석틀로 하여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3>에서처럼 6가지 핵심 개념 및 두 가지 의미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3> ‘여성 목회자 스트레스 경험’의 범주화

| 범주                 | 핵심 개념        | 개념              |
|--------------------|--------------|-----------------|
| 목회 현장의 말할 수 없는 이야기 |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별 | 남성 중심의 공간 배치    |
|                    |              | 여성 교역자에 대한 고정관념 |
|                    |              | 호칭의 문제          |
|                    |              | 담임목사로의 청빙 제약    |
|                    |              | 선임이 될 수 없음      |

| 범주           | 핵심 개념               | 개념                     |
|--------------|---------------------|------------------------|
|              | 갈등적 관계              | 보조적인 역할 수행             |
|              |                     | 상급 목회자의 책임 전가 및 직권 남용  |
|              |                     | 동료 목회자의 소문 유포          |
|              |                     | 여성 목회자 간의 경쟁 구도        |
|              | 불평등한 처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 노후대책 미비                |
|              |                     | 낮게 책정된 기본급             |
|              |                     | 주거 미지원                 |
|              |                     | 교회를 위한 대출 반대           |
| 가정이라는 무거운 숙제 | 서로 다른 우선순위          | 목회자 자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자녀   |
|              |                     | 아내이자 주부가 먼저 되기를 바라는 남편 |
|              |                     | 주말에 함께 쉼을 원하는 가족       |
|              |                     | 체력의 한계                 |
|              | 일-생활 양립으로 소진        | 정서적인 어려움               |
|              |                     | 독신 여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       |
|              |                     |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교인          |
|              |                     |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부재          |
|              | 독신으로서의 고충           | 경험 부족으로 한계를 느낌         |

## 1) 목회 현장의 말할 수 없는 이야기

### (1)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별

미묘한 차별은 유색인종 차별에 대한 논의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로 최근 미묘한 성차별에 관한 연구로도 이어지고 있다(강혜원·이정운, 2020: 64).<sup>4)</sup> 연구참여자인 여성 목회자들은 대부분 차별을 인식하고 있지만, 차별의 양상이 미묘하다는 점에서 개선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렇듯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영준(2017)의 연구는 공간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성 중심의 공간 배치가 미묘한 차별의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연구참여자 K의 경우, 업무 공간에서의 자리 배치로 인한 차별을 토로한다. 교회의 공식 모임인 예배를 마친 뒤 일렬로 서서 인사를 할 때 여성 목회자들이 남성들에게 이어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되는 것 또한 차별로 인식한다.

자리 배치는 꼭 감시당하는 기분이다. 내가 뭐하나 싶어 사무실을 들어가며 나오면서 내 자리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구석진 곳, 눈에 안 보이는 자리에 앉

4)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영어를 잘한다고 반복해서 칭찬하는 것은 미묘한 차별의 예가 될 수 있다(나리타 마미·장은영, 2020).

으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서 좋기는 하지만 왠지 차별받는다라는 느낌이다. 자리도 공간도 나를 홀대하나 싶다. (서영준, 2017, 365~366쪽, 연구참여자 K)

중세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성의 위치를 남성에 종속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이는 교회의 오랜 역사에 두루 영향을 끼쳤다(최종호, 2010: 178). 게다가 유교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는 타자화된 여성만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철학은 남성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교회를 합리화하였다(박정신, 2011: 179).

교회 내 여성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지도자인 여성 목회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분석대상 문헌의 연구참여자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요구받으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들은 중요한 정보 교환이나 업무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남성 목회자 없이는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하는 장벽에 마주하기도 한다(서영준, 2017). 나아가 목회자 그룹에서 선임의 위치가 되었음에도 공식적인 리더십을 부여받지 못하거나(박향숙, 2020)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독교 예배의 핵심인 설교 순서 배정에서도 배제를 경험한다(김윤희·송현, 2020).

때때로 여성 목회자들은 ‘목사님’이 아닌 다른 호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남성 목회자에게는 이름과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지만, 여성을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오현주, 2018).

목사가 됐지만, 남자 목회자 사이에서 평신도로 취급하죠. 또 예전 교회 사람들도 아직도 저를 목사님이라 안 부르고 권사로 불러요. 여성 목사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오현주, 2018, 91쪽, 연구참여자 8)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은 교인들만이 아닌 남성 동료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여성 목회자들은 교회의 상위 기관인 노회의 모임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김윤희·송현, 2020). 그리고 이것은 여성 목회자들이 노회와 그다음 상위 기관인 총회의 의결 과정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암묵적 태도에 우울감과 분노, 정체성 혼란을 호소하는 연구참여자도 있다(서영희, 2018). 이러한 사례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목사가 되었음에도 목사로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미묘한 성차별의 경험은 여성 목회자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2) 갈등적 관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여성 목회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여성 목회자만이 경험하는 독특한 스트레스 경험이라기보다는 여성과 남성 목회자, 나아가 인간이라면 모두 마주하게 되는 공통의 경험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성 목회자의 불안정한 입지가 이러한 갈등적 맥락에서 이들을 약자로 내몰리게 한다는 점이다. 먼저, 여성 목회자의 담임목회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여성 목회자는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담임목회를 하는 여성 목회자의 비율은 남성 목회자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고 부목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박보경, 2008: 82).

실제로 여성 목회자들은 상급 목회자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호소하고 있다. 담임목사가 교인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연구참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목회를 중단해야만 하는 위기를 경험하거나 상급 목회자에 대한 분노로 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목회의 위기가 딱 2번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를 옮겨야 할 때, 담임목사님이 나를 내쳤을 때 제가 그것도 아직까지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여전히 나는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물어두지 뭐. (김미성, 2013, 66쪽, 연구참여자 E)

갈등은 상급 목회자뿐 아니라 동료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데 여기서 동료 목회자는 성별이 다른 남성과 동성 간인 여성 목회자로 분류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같은 여성 동료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첨예한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그 사실을 감추려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오영희(2019)의 연구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중에서도 5년간 함께 일한 여성 동료 목회자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 연구참여자 B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녀의 사례를 통해 여성 목회자들이 “여목사끼리 싸운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갈등적 관계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며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참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속이 부글부글했지만 대놓고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니 년이…”라고 욕까지 했어요. 큰소리치면서 싸우자고 달려드니까 교인이나 다른 목회자들이 보고 싸운다고 할까 봐 일방적으로 참았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만하세요!”하고 다가서서 말했어요. (오영희, 2019, 57쪽, 연구참여자 B)

여성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제한적인 기회(조혜정·양성은, 2014: 284)는 때때로 여성 동료 목회자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것은 남성 목회자와 비교할 때 여성 목회자에게 가중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갈등적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일이 금기시되기 때문에(박향숙, 2020; 오영희, 2019)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한 채 쌓이게 된다.

### (3) 불평등한 처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이정숙(2003)은 목회자가 받는 재정적 보상인 사례비를 여성 목회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외적 요소 중 하나로 보았다. 그러나 여성 목회자의 사례비 책정에는 가족 크기, 가족부양의 내용 차이, 교육수준이나 경력 차이 등이 그다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실제로 여성 목회자들은 남성 목회자들과 기본급부터 다르게 책정되거나 낮은 사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김윤희·송현, 2020). 박향순(2020)의 연구참여자들은 빈약한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수입이 있다는 이유에서 다른 남성 목회자와 달리 사택을 지원받지 않은 연구참여자 B나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면서도 사택에 상응하는 별도의 재정을 지원받지 않은 연구참여자 C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여성 목회자들은 남성 목회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사례비를 받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승미 외(2014)는 여성 목회자의 소명감은 물질적 조건이나 외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임에도 이들의 사례비 문제는 공론화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 및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보장이 조금씩 개선되어 온 것과 달리 교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집단에 머물고 있다(김혜령, 2022: 323). 이러한 남성 중심의 구조로 인해 여성 목회자들은 기존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는 일이 드물고 자연히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여성 목회자들이 빠듯한 재정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가정에서 나와 따로 교회 건물을 얻고 싶어요. 근데, 교회 월세를 걱정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작은 교회를 하는데 더 재정으로 위축될 것 같아서 그걸로 인해 선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실패를 경험해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재정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출해서 쓰고 그런 상황인데... (오현주, 2018, 83 쪽, 연구참여자 8)

개척교회 기혼 중년여성 목회자의 경험을 탐색한 오현주(2018)의 연구를 보면,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무보수로 봉사하거나 오히려 가정에서 목회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악한 개척 목회의 비용을 장기

간 연구참여자들 스스로 충당함으로 인해 가정의 재정 형편도 시간이 갈수록 궁핍해지고 이것은 스트레스로 이어질 여지가 다분하다.

여성 목회자들의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이들의 은퇴 후 노후대책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조승미 외, 2014: 138). 그중에서도 독신 여성 목회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미비한 노후대책으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다. 김미성(2013)의 연구를 통해 독신 여성 목회자들이 은퇴 이후 재정적 상황에 대해 염려하면서도 목회자로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며 자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신이다 보니까 형제들이 아무리 있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이제 나는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비를 준 것 가지고 그것을 저축하고 알뜰살뜰 살았나? 그거는 저는 0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대접하고 그러면 축복해 주신다고 설교하며 가르쳤는데 정작 나를 되돌아볼 때 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래서 정말 안 되겠다. 모아야겠다 하면서 또 그건 되지 않더라고요. 은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실지 그건 잘 모르지만, 지금으로 볼 때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 갈등이 많이 되죠. (김미성, 2013, 77쪽, 연구참여자 E)

## 2) 가정이라는 무거운 숙제

### (1) 서로 다른 우선순위

기혼인 여성 목회자는 한국 사회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일-생활 양립의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생활 갈등은 맞벌이 여성에게 너무 많거나 상호 대립적인 역할이 요구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신체적 피로, 긴장,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소정, 2020: 182).

일반적으로, 남성 목회자의 배우자는 목회자 본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력자로 인식된다(김보람·김사라형선, 2019: 68). 그러나 여성 목회자의 경우, 남편의 협력을 받는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 뿌리 깊은 가부장적 전통의 영향으로, 여성 목회자는 목회보다 가정을 우선으로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고도의 사명감을 요구하는 목회자의 직업군 특성상, 두 가지의 상반된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목회자는 사적 영역보다 공적 영역인 목회를 최우선으로, 포기과 희생이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서영희, 2018: 15) 기혼여성 목회자는 여타의 다른 직업군보다도 상당한 수준의 일-생활 양립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

김순란(2020)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B는 목회자가 되는 것부터 남편의 심

한 반대에 부딪힌 경험을 공유한다. 연구참여자 B의 남편에게는 형이 목회자가 되면서 대가족의 장남 역할을 해야만 했던 트라우마가 있었고 아내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가정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 심하게 반대한 것이다. B는 목회자로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댁에 더 잘하려고 하는 등 최선을 다했고 B의 남편은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목회의 조력자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 C의 경우, 처음 신학 공부에 입문할 때는 남편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으나 본격적으로 목회의 길에 뛰어들려고 했을 때 갈등에 부딪히게 되었다. ‘목회를 가정을 버리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남편의 인식 때문이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우선순위로 인해, 기혼여성 목회자들은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유자녀 기혼여성 목회자의 경우, 남편뿐 아니라 자녀들로부터 받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헌신을 요구로 하는 목회자의 직무상 자녀 양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머니자 목회자인 연구참여자들은 자연히 자녀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양육방식을 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녀와의 갈등을 겪기도 한다. 평범한 엄마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예 목회 중단을 요구하는 자녀들도 있다. 여기에서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발생하고 이는 유자녀 기혼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로 직결된다.

자기를 잘 대해줬던 엄마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버린 거야. 엄만지 목사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저희는 공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엄마가 없어져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오현주, 2018, 75쪽, 연구참여자 2)

아침마다 전쟁판이죠. 그러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스스로 하게끔 다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푸근한 엄마, 뭐든 해결해 주는 엄마보다 책임을 강조하는 엄마가 된 거지요. 그게 가슴 아파요. (김순란, 2020, 54쪽, 연구참여자 A)

여성인 목회자도 시집살이를 경험한다. 특히 같은 기독교인인 시댁 식구들에게 목회자로서의 특수성을 이해받지 못할 때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는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서영희(2018)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1은 “시부모님들은 모두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임직자들이었는데 막상 결혼 후 실생활에서는 그분들이 임직자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시집살이가 너무나 버거웠다”고 회상한다.

목회와 가정을 둘러싼 서로 다른 우선순위로 어려움을 겪는 건 비단 기혼여성 목회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임지연·김동민(2020)에서 연구참여자 A는

이러한 난관에 부딪힐 것을 예상하고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했고 결혼 후 지속적인 역할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다.

## (2) 일-생활 양립으로 소진

기혼여성 목회자는 목회와 가정의 영역에서 모두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슈퍼우먼을 자처하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체력적인 이유에서나 정서적인 이유로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의 영역에서 부과되는 역할과 생활의 영역에서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서 중첩되는 역할 간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건 한국 사회의 기혼 직업여성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혼여성의 스트레스가 여성 목회자들에게 가증되는 이유는 소수자로서 여성 목회자의 불안한 입지와도 관련이 있다. 실제로 서영희(2018)의 연구참여자들은 남성 목회자들보다 더 잘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신체적 탈진이 심해지는 공통적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숙(2020)의 연구참여자 B는 아이를 낳고 사역하는 여성 목회자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주변의 눈치를 봐야 했고 아이 때문에 목회 사역에 소홀히 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며 소진을 경험하였다. 거꾸로, 가족들로부터 목회 활동에 대한 비협조 또는 반대를 경험하는 여성 목회자들은 더 열심히 가사노동에 임하는 경향을 보인다. 목회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이들은 교회에서는 여성이라서, 가정에서는 목회자라서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슈퍼우먼이 되고자 하는데 이는 체력적으로는 물론 심리정서적인 소진으로도 이어질 위험이 크다.

좀 쉬고 싶은데 아내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젖어 있어서 차려줘야 되지, 챙겨줘야지, 그런 것들이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오고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죠. (서영희, 2018, 58쪽, 연구참여자 1)

저도 남편 눈치 보며 다중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애썼어요. 아침에 빵 안 먹고 새벽밥 지으려고 노력했고, 내 성격에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하고, 가족에게 걸림돌이 안 되려는 몸부림이랄까? (김순란, 2020, 31쪽, 연구참여자 C)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려는 여성 목회자들은 가족들과 심리적인 거리가 발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오현주(2018)의 연구참여자들은 두 역할 사이에서 목회 활동을 우선하게 될 때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며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목회를 우선으로 살면서 남편, 자녀, 시댁과 친정 등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여성 목회자의 정서적 소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목회자



우선이라 요양병원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친정엄마에게 갈 수 없는 상황에 불효녀라고 자책하며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한 연구참여자 7의 사례가 그러하다. 이렇듯 가정의 중요한 대소사와 목회의 일정이 겹칠 때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며 여성 목회자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 (3) 미혼으로서의 고충

가정은 기혼여성 목회자뿐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 목회자에게도 무거운 숙제이다. 미혼인 여성은 목사안수 면접 과정에서 결혼에 관한 질문을 피해가기 어렵다. 박향숙(2020)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C는 결혼을 왜 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인지, 결혼 후 가정과 목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면접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표현하지 못하고 꼭 눌러 삼켰다.

이러한 사례는 남성 목회자의 결혼을 목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성 목회자에게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최순양, 1998: 72)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사와 육아 노동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여기는 가부장적 전통 때문인데 그렇다고 독신 여성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 만만한 것도 아니다. 미혼인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생활 경험의 부재로 삶을 이해하는 폭이 좁을 것”이라는 교인들의 편견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스스로는 한계를 느끼지 않았음에도 “가정이 없으니 전도사님은 모를 거다”라는 교인들의 말에 사역의 한계를 느끼게 된 사례가 그러하다(김미성, 2013).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타인의 말이나 시선 때문이 아닌 스스로 내적인 한계를 절감할 때다. 미혼인 여성 목회자는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여기면서도 목회의 위기 등을 경험할 때 남편의 부재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남편과 자녀가 있는 교인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다(김미성, 2013).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결핍도 미혼 여성 목회자에게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오영희(2019)에서 연구참여자 A는 교회에서 갈등을 겪으며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외로움과 무기력증에 시달려야 했다.

이성적 마음을 갖는 것 같아 내가 쌀쌀하게 했더니 힘들게 했던 성도가 있었어요. 혼자 오해하고 생각하며 나를 힘들게 했어요. 전화해서 앙심을 품은 자기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차갑게 대했다 이거지. (중략...) 지금 내 마음 상태를 표현하면 고무풍선이 바람 빠진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에서도 사역에서도 불합리하

다고 생각되며 세월이 흐를수록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은 피해의식이 생겨나요. (김미성, 2013, 80쪽, 연구참여자 D)

위의 사례에서처럼 자신을 목회자가 아닌 여성으로 보고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남성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미혼인 여성 목회자는 보호받기 어려우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 V.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한 여성 목회자의 경우 한국 사회 기혼여성이 대체로 경험하는 것처럼 일-생활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에서의 역할 갈등이 여성의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정신건강, 질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김소정, 2020: 178). 기혼여성 목회자들 역시 이러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으며 높은 소명의식으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목회의 직업군 특성상 오히려 더 극심한 일-생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여성 목회자 역시 직업여성으로서의 전문성보다 가정에서 아내이자 엄마로 전통적인 역할에 우선권을 둘 것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혼 여성 목회자에게도 결코 무관한 스트레스가 아니다. 기혼 직업여성에게는 일-생활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확산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절실히 요구되며(김지아·고민석, 2012: 2751) 여성 목회자를 위해서도 이러한 조직문화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 내에서 여성 목회자는 소수자 집단으로 미묘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소수자는 한정현(2016)의 주장처럼 지배적 척도로부터의 거리로 규정되는 개념으로 여성 목회자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소수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자 목회자인 연구참여자들이 미묘한 차별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사실을 반증해 준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으로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이 자신의 일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되는 것(박지선·이은설, 2022)과는 다르게 여성 목회자의 경우 미묘한 차별이 있음에도 목회 일에 대한 자부심을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특유의 높은 소명의식으로 차별의 상

황을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으로, 여성 목회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에는 남성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중첩되는 것들도 나타난다. 그 예로 상급 목회자 또는 동료 목회자들과의 갈등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데 여성 목회자에게는 소수자라는 이유에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더 가중된다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수자인 이들은 남성보다 잘해야만 한다는 압박감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관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 목회자가 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여남이 모두 평등한 교회로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단적 연대로 공론화되어야 할 교회의 문제이다(조승미 외, 2014: 141).

셋째, 여성 목회자는 교회 안팎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서를 쉽게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편으로 드러났다. 목회자이기에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부재한 것은 고스란히 스트레스로 가중되었다(김윤희·송현, 2020: 292; 임지연·김동민, 2020: 444). 결혼한 여성 목회자의 경우, 가정에서도 목회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으로 부정적인 정서 표출을 자제하였다. 목회자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인데(오영희, 2019: 81) 가족 구성원들이 목회 활동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일수록 더욱 그러했으며 가족의 지지가 없을 때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서로 다른 우선순위로 인해 가족과의 심리적인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여성 목회자 연구물의 전체 수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여성 목회자의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물들을 선정한 뒤 스트레스의 경험에 주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이외의 경험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정은 무거운 숙제이기도 했지만,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지나 가족으로부터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받게 된 사례도 발견된다(오현주, 2018). 학업 등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며 이겨내거나(임지연·김동민, 2020) 여가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사례도 있다(김미성, 2013). 이에 여성 목회자의 이러한 스트레스 극복 경험을 후속 연구 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남순(1998).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강현미(2021).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내며 소수자들의 해방을 위한 성령(기氣/바람風)— 여성 신학의 이론적 접근”. *신학사상*. 제195집. 477-509.
- 강혜원·이정운(2020). “미묘한 성차별(Gender Microaggression)에 대한 개념도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106권 제3호. 63-92.
- 강호숙(2020). “보수기독교 내 젠더인식과 젠더문제에 관한 연구 - 성경적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신학과사회*. 제34권 제2호. 109-148.
- 강희수(2013). “한국 여성신학과 여성목회현장의 만남”. *기독교사상*. 제651호. 34-45.
- 계재광(2010). “유교문화가 한국교회 리더십 형성에 미친 영향 - 유교의 권위주의 영향을 중심으로”. *신학과실천*. 제22호. 77-106.
- 고경애(2011). *여성 목회자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다중역할몰입,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나미(2016). “교회의 여성혐오를 다루지 않고서는 500주년 종교개혁을 논하지 말라”. *제3시대*. 제89호. 7-10.
- 김모란(2013). “양성평등적 목회를 위한 여성 지도력 연구”. *한국여성신학*. 제77호. 94-116.
- 김미성(2013). *독신여성이 경험하는 목회적 삶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정(2018). “환대산업 여성종사자들의 유리천장에 대한 경험 -근거이론에 의한 탐색적 고찰”. *동북아관광연구*. 제14권 제3호. 111-131.
- 김보람·김사라형선(2019).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영적안녕감의 조절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30권 제3호. 67-90.
- 김소정(2020).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갈등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가구 소득수준의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51권 제3호. 177-204.
- 김순란(2020). *여성 목회자의 가족 관계 갈등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애영(2009). “여성해방적 예배의 추구하고 전망”. *신학사상*. 제146집. 131-165.
- \_\_\_\_\_(2011). “기장 여교역자들의 삶, 사역의 실태와 미래에 대한 추구 : 2010, 기장 여교역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신학연구*. 제58호.

95-125.

- 김예은·연구진(2018).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3권 제3호. 499-523.
- 김윤희·송현(2020). “중년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학과사회*. 제34권 제4호. 277-300.
- 김은하·김경희·박한솔·정보현(2018).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 세계관 입증이론을 토대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3권 제3호. 409-429.
- 김은혜(2009). “양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교회 여성운동”. *한국여성신학*. 제69호. 11-15.
- 김은희(2009).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유리천장(Glass Ceiling): 지각과 직무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4호. 1337-1367.
- 김지아·고민석(2012).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일-양육 갈등이 일상적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제12권 제1호. 2741-2754.
- 김진호·박재형·박지은·박진경·송진순·이은애·이주아·장영주·최순양·최유진(2018). *혐오와 여성신학*. 서울: 동연.
- 김혜령(2022). “젠더 정의의 퇴행 공간으로서의 한국 교회—부산에서 칼스루헤까지”. *신학사상*. 제196집. 307-346.
- 김혜영·신헌령·양옥경·이은진(2018). “여성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직장 내 폭력적 경험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원과 관계만족의 조절효과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제9권 제2호. 177-222.
- 나리타 마미·장은영(2020).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제13권 제4호. 75-101.
- 노유영·임춘희(2017). “미혼 여성의 결혼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자아실현욕구, 부모의존, 일·가정 양립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2권 제2호. 71-97.
- 들뢰즈, 가타리(2001).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Deleuze, Guattari, Mille Plateaux, Paris: Les Edition de Munuit, 1980).
- 류진아·오은경(2021).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질적 탐구*. 제7권 제1호. 35-69.
- 박경순(2007). “리더십 측면에서 본 여성안수”. *신학과실천*. 제12호. 73-96.
- 박미애(2019). *기혼여성 목회자의 일-가정 갈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보경(2008). “여성목회 현장분석과 여성사역 전문화를 위한 과제”. 장신논단. 제 32권. 77-109.
- \_\_\_\_\_(2013). 여성·교회·하나님의 선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박수경·이선우·배종필(2018).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이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5호. 241-255.
- 박수현·김문정(2020). “기혼여성 보험심사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일-가정 갈등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14권 제4호. 1-12.
- 박정신(2011). “우리 역사에 나타난 여성과 기독교의 이음새 그 맞물림과 엇물림의 사회사”. 여성과 역사. 제14호. 175-197.
- 박지선·이은설(2022). “직장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팬텀은 일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일의 심리학 이론의 적용”. 상담학연구. 제23권 제1호. 187-213.
- 박충무·윤현서(2018). “성인 여성들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구강증상 자각 여부”.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8권 제9호. 837-846.
- 박향숙(2020). “한국 기독교 여성 목회자의 배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63권. 117-134.
- 서영준(2017). “여전도사의 차별적 문화에 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장신논단. 제 49권 제1호. 359-385.
- 서영희(2017). 중년여성 목회자의 탈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송정명(2021). “중년여성들의 부부 갈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요가 참여 경험의 조절 효과”. 한국체육과학회지. 제30권 제3호. 277-290.
- 신다예(2022). “스트레스, 우울 및 즐거움 경험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역할”. 스트레스연구. 제30권 제1호. 30-36.
- 양미강(1995).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여성목회”. 시대와 민중신학. 제2권. 18-38.
- 오영희(2019). 교회 내 여성 목회자의 동성 동료 갈등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현주(2018). 개척교회 기혼 중년여성 목회자의 심리사회적 경험.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우성미·오소영(2019). “주제어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국내 여성리더십 연구 동향”. 여성연구. 제101권 제2호. 5-34.
- 우승희·주은주(2015).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구강건강관리”. 치위생과

- 학회지. 제15권 제5호. 527-535.
- 유옥(2007). “한국인의 종교심리와 목회상담-유교와 목회상담 -유교문화권에서 성장한 여성 목회상담자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목회와상담. 제9권. 80-102.
- 이광순(2005). “여성 안수와 교회 여성 리더십의 활성화와 발전”. 장신논단. 제23권. 327-358.
- 이난희(2021). “한국 교회 여교역자의 목회 경험 사례 연구와 치유를 위한 여성신학적 제언”. 신학과실천. 제76호. 457-486.
- 이민옥·김지선·정슬기(2018). “자녀가 있는 여성의 시간빈곤과 정신건강-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소득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제62호. 39-69.
- 이상훈(1992). “교회사를 통해 본 여성안수 문제”. 교육교회. 제194호. 11-20.
- 이승호·박대권(2016).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34권 제3호. 129-158.
- 이유경(2014). “40세 이상 미혼 여성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5권 제3호. 219-248.
- 이원미(2020). “체육관련 기관 여성 관리자의 유리천장 경험”. 한국융합과학회지. 제9권 제2호. 20-33.
- 이정숙(2003). “한국개신교 여교역자의 인권”. 아시아여성연구. 제42호. 113-171.
- 이정숙(2017). “청소년의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의 변화과정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386-398.
- 이혜진(2007). “여성목회자가 존중받는 교회를 꿈꾸며”. 새가정. 제54호. 26-29.
- 임지연·김동민(2020). “생애사 연구로 고찰한 기독교 여성 목회자의 삶에 관한 사회·문화적 해석”. 신학사상. 제189집. 431-459.
- 전명철·김진숙(2019).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및 부부갈등의 역할”. 상담학연구. 제20권 제1호. 93-120.
- 정재명(2010). “공직인사상 여성공무원의 유리천장현상인식과 조직시민행동”.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1호. 181-202.
- 정정숙(2008). “한국교회 여성사역의 역사적 이해”. 기독교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36-63.
- 조상이(2016). 한국 기독교 여성지도자의 사역과 의미. 호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승미·박혜훈·최혜영·임희숙·박미현·차옥승·조은수·이숙진·강혜경·우혜란(2014). 한국 여성 종교인의 현실과 젠더 문제. 서울: 동연.

- 조혜정·양성은(2014). “여성의 신학대학원 진학과 진로결정에 대한 질적연구”. 기독교교육정보. 제40호. 271-295.
- 최수찬(2018). “톨게이트 여성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561-572.
- 최순양(1998). “한국교회 내 목회현장에서의 여성배제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여성신학. 제33호. 70-80.
- 최종호(2010). “여성들의 목회 참여를 위한 성격적-신학적 고찰: 여성 목사 안수 문제에 관하여”. 인문학 논총. 제15호. 175-193.
- 한정현(2016). “들뢰즈/가타리 관점에서 본 소수자 신학 연구”. 신학사상. 제175집. 281-313.
- Akojie, P., Entrekin, F., Bacon, D., & Kanai, T.(2019). Qualitative Meta-Data Analysi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Online Doctoral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3(1), 116-134.
- Levitt, M. H.(2018). How to conduct a qualitative meta-analysis: Tailoring methods to enhance methodological integrity. *Psychotherapy Research*, 28(3), 367-378.
- Noblit, G., & Hare, R.(1988). *Meta-Ethnography: Synthesizing qualitative studies*. Newbury Park. CA: Sage.
- Romina, B. D., Stephanie, M. H., & Anne, S.(2016). Whose Reality? A Meta-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ducation. *The Qualitative Report*, 21(4), 661-676.
- Sandelowski, M., & Barroso, J.(2007). *Handbook for synthesizing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Schleifera, C., & Miller, A. D.(2017). Occupational Gender Inequality among American Clergy, 1976-2016: Revisiting the Stained-Glass Ceiling. *Sociology of Religion*, 78(4), 387-410.
- Sue, D. W.(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Hoboken. N.J. : Wiley.
- Weed, M. E.(2005). Sports tourism research 2000-2004: A systematic review of knowledge and a meta-evaluation of methods. *Journal of Sport and Tourism*, 11(1), 5-30.
- Zimmer, I.(2006). Qualitative meta-synthesis: a question of dialoguing with tex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3), 311-318.



Abstract

## A Qualitative Meta-Analysis on the Stress Experience of Female Pastors

Kim, Hyemi\*·Kim, Youngsoon\*\*

This study explored the multi-layered aspects of the stress experience of female pastors. A qualitative meta-analysis was conducted after nine out of 346 studies were selected. As a result, two semantic categories were derived, and three core concepts were derived respectively. First semantic category is 'Stories that can not be said in the ministry field' and second semantic category is 'The burden of the family.' It was found that female pastors are experiencing various kinds of stres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hurch.

The discussion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married female pastors experience stress due to work-family conflict, as most married women experience in Korean society. Second, female pastors experience microaggression as a minority group within the church. Third, female pastors experience negative emotions from stress inside and outside the church, but those emotions are not easily expressed.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of the need for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their stress and it confirmed that they are vulnerable group to stress. Lastly, the limitation of the study was stated, and the experience of overcoming the stress of female pastors was suggested as a follow-up research topic.

**Keywords :** Female Pastors, Stress, Work-Life Conflict, Gender Microaggression, Qualitative Meta-Analysis

---

\* First Author: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